



시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함으로 혼혈과 타락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실색하여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분노하여 옷을 찢었고 찢은 옷을 그대로 입을 채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스 9:5-6).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의 소식을 듣고는 한편으로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며 옷을 찢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다. 그는 옷을 찢음으로써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동시에 찢은 옷을 그대로 입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므로 흉하고 추악한 유대 백성의 범죄한 모습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우리가 비록 엄청난 죄를 범했을지라도 솔직하게 범죄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사1:18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우리 서로 이야기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은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겸손히 꿇어앉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슬퍼하며 옷을 찢었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에스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여 내가 부끄러워 낫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6)라고 고백하였다.

자기 동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웃과 사회의 죄악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신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성도이다. 우리는 때로 나 자신은 죄에 동참하지 않았기에 의인이라는 생각에 서로 잡혀 스스로 자족하며 타인의 범죄에 무관심한 채 안일하게 지내며 남의 죄와 허물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쉽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죄를 가슴 아파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에스라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겸손한 자세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은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시이다. 즉 내 능력(손)은 약 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십사 하는 표시이다. 왕상19:18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왕상8:54에 보면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오늘날에도 국가 사회의 지도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것이다.

손은 인간의 능력을 상징한다. 에스라가 두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전폭적으로 자신을 항복시키는 사람의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웃과 다른 교인이 저지른 죄악을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에스라와 같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이다. 중보기도는 어느 기도보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이다. 우리도 나보다 남을 위하여 더 간절히 더 힘써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기를 기원한다.

오순절 교회는 성경적이다!

카리스마, 오순절교회에 대한 10가지 오해 소개와 해명 보도

교회사에 있어 "제 3의 물결"로 불리우고 있는 오순절교회의 성장은 1906년 이후 100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25% 정도가 오순절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한 세기 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교회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없 수 없다.

특히 남미의 50% 이상이 오순절교회이고 전 세계 오순절교회의 26%가 남미에 속해 있다. 그래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남미의 오순절교회는 더 이상 일반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중상층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독교권이 됐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교회가 아니게 되어, 많은 일반서민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지적되는 것은 기본신앙이나 성경의 현재적인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다가 잘못하면 주관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져, 오순절 계열의 교회 가운데 소위 사이비나 이단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오순절교회 계열인 "카리스마"지는 오순절교회에 대한 10가지 오해들을 소개하면서 동 교단의 정당성을 보도한다(10 Top Misconceptions About Pentecostal Christians: Don't believe the stereotypes about Pentecostals in America).

1. 오순절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60년 이후로 미국에서는 다른 교단에서도 오순절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오순절성공회, 오순절감리교, 오순절침례교 그리고 상당수의 오순절개톨릭들이 출몰하게 됐다.

2011년 퓨리서치 설문에 따르면 현재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인들의 숫자가 미국에서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년에는 영국성공회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웹비는 방언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 25%가 오순절 교회 영향 받아 "가난하고 무식하지 않으며 번영복음 주장하지 않아"

2. 무식하지 않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

항상 오순절교회는 신학적으로 무식해 어리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올 3월에만 세계에서 저명한 300명의 오순절 신학자들이 미조리 스프링필드에서 모였다. 여기에는 100개 교단, 200개 신학교들에서 온 신학자들이 오순절 신학에 대한 견해를 정리했다.

3.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1906년 오순절교회의 시작은 천막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중상층들이 대개 교인이며,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부유한 오순절교인들이 대규모 선교 프로젝트들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번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홀리 로비'사의 회장, 데이빗 그린 역시 오순절 교인이다.

4. 번영의 복음을 지지하지 않는다.

6. 방언을 할 때 의식을 잃고 초월상태로 들어가지 않는다.

오순절 교인들은 자발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들이 원할 때, 쉬고 또 기도한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방언 기도는 평안과 함께 안정을 가져다준다. 뉴욕타임스 역시 2006년 보도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교인들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들어선다고 한다.

5. 뱀을 다루지 않는다.

케이블 방송채널(National Geographic)에서 얼마 전에 "뱀으로 말미암은 구원 쇼"를 방영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불과 125교회들만이 이러한 유사종교행위를 하고 있고, 교인들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사실은 뱀을 다루는 교회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던 제이 미 쿡츠가 올해 바로 뱀에 물려 사망했다. 오순절 교단은 1910년 뱀을 다루는 의식을 이미 정죄했다.

7. 모두가 공화당원이 아니다.

물론 공화당 티파티 운동의 핵심들(Sarah Palin, John Ashcroft)이 오순절 교인들이지만, 모든 보수적인 백인들이 모두 오순절 교인들은 아니다.

현재 상당수의 교인들은 바로 흑인들과 히스패닉이며,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8. 인종주의자들이 아니다.

오순절교회의 태동에는 어느 정도 인종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교회에는 다른 교단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종들이 모여 있다. 바로 성경 안에서 인종이나 문화적인 벽들이 갈라져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9. 딱 막힌 사람들이 아니다.

오순절 설교자들이 다른 침례교 설교자들처럼, 한때는 세속적인 여흥이나 오락 즉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는 세속적인 것들에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적이 있다. 여성들은 바지를 입어서 안되고, 화장도 해서는 안되고, 남성들은 카드 놀이를 해서는 안되고, 영화를 보는 것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대표적으로, 로렌 카닝햄의 아들인 데이빗은 영화감독이다.

10. 사라지지 않는다.

1980년에는 오순절 교인들의 전체 크리스천들 중 오직 6%였다. 그

러나 현재는 26%에까지 이르렀다.

풀리처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만 오순절 교인들이 35,000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에는 1 조 정도로 교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오순절교회는 절대로 미국 사회의 한 구석에 속한 변두리가 아니다.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and a subscription form.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along with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and campus information.

경기수칙 준수...풋대 향해 경주

바나리서치, '2014월드컵 마침내 축구사랑 미국인 만들었다' 설문결과 보도

(1면에서 계속)

좀 더 세분해보면 남자들(46%) 그리고 부머스 세대(48%)와 크리스천들(55%)이 스포츠의 영향력에 동조하고 있고, 반면에 밀레니엄 세대(38%)와 연수입이 2만 달러미만에 고졸인 사람들(33%)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41%), X 세대(42%), 엘터스(43%) 등은 평균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휴일이나 짬만 있으면 야구나 농구, 골프 그리고 프로 풋볼 경기를 보는 미국인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어떠한 미디어보다도 스포츠 전문채널인 ESPN의 상승가는 연일 올라가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직종이 바로 대학운동코치로, 67% 미국인들은 스포츠가 삶의 우선순위라고 응답하고 있을 정도다.

결국 ESPN채널에서도 NFL이나 FIFA내에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로, 스포츠 전문 논객들의 쟁점을 제기로 한 "운동이 너무 우선시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월드컵에만 국한시켜도 이미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하는 카타르에서는 축구장 신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했고, 브라질에서도 대형 축구장 신축과 개축에 4천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인들 역시 스포츠가 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염려를 하고 있다. 즉 62%의 미국인들은 미국의 프로 운동 경기들이 "심각할 정도로 부패했다"고 응답을 할 정도다. 그리고 86%는 운동선수들이 너무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그리고 스포츠가 실제로 지구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는 무엇일

까?

이번 월드컵을 통해 축구가 미국에서 사랑을 받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스포츠"들이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청률과 실제로 참여해 운동을 하는 스포츠는 아직까지는 "미국 풋볼"이다. 53%의 미국인들은 거의 정기적으로 이를 시청하고 실제로 경기를 벌이고 있다. 야구와 농구는 그 다음으로 33%가, 골프와 축구는 11%, 테니스는 10%의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전통적인 스포츠들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남성들 위주의 경기라는 특성이 작용한다. 따라서 자녀들과 집에서 운동을 하는 비율은 18%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야구와 농구는 22%로 아직까지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미국에서 유난히 스포츠가 인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크기와 영역 그리고 재정적 지원들

이 조달되고 있다는 독특성에 기인된다. 일단 스포츠를 실제로 경기하고 시청하는 고정 팬들의 수입과 라디오, TV, 인터넷의 결

합으로 거의 열광적인 수준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다. 축구는 전통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약세였다. 그 이유는 바로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스포츠들은 미국 태생 선수들과 고정 팬들이 있지만, 축구는 먼저 히스패닉 시장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히스패닉 미국인들은 어떠한 미국인들보다 축구에 열광한다. 즉 35% vs. 16%로 거의 두 배나 높게 이들은 축구를 하고 또 보고 있다.

밀레니엄들 역시 성장하면서 축구를 한다. 미식축구나 농구, 야구는 어렸을 때 하지만 축구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삶에 대해 미국적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적이다. 따라서 많은 밀레니엄들은 축구만이 진정으로 글로벌한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축구는 레크리에이션 영역으로까지 더욱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나 경향을 따져볼 때 NFL이나 NBA같이 MLS(미국프로축구리그)가 각광을 받는 시장으로 성공할 수 있다.

결론으로, 신앙과 운동경기는 깊은 관련이 있다. 신앙은 경주하는 것과 같다. 고든 맥도날드(Gordon MacDonald)의 책 '영적 성장의 길'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책이다. 성경에서도 종종 신앙과 운동경기를 유비(analogy)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딤후2:5).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복음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복음과 무관한 인간의 행위는 코스를 이탈한 경주자처럼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하고 실격처리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1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수많은 관중들이 짝 들어찬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경주하는 운동 선수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를 지켜보는 신앙인들이나 교회 리더십은 항상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거나 운동을 하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울은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다. 미국인들이 스포츠를 보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으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성경묵상의 즐거움에 빠져보라!

(1면에서 계속)

묵상을 통해 얻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길에 동참하는 기쁨,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말씀 사건의 증

인이 되는 기쁨이야말로 거친 광야를 걷게 하는 원동력이다. 묵상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얻고 싶어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없게 된다. 하나님 자신이 묵상의 목적(purpose)이 되

고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묵상의 목표(aim)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묵상을 즐기고, 묵상의 즐거움에 빠져보기를 소망한다.

시 멈춰 뒤를 돌아볼 때이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 묵상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다. 묵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우리 모두 묵상을 즐기고, 묵상의 즐거움에 빠져보기를 소망한다.

'시편' 은혜 나누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112편 : 생각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112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 중 우리의 복된 신분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우리를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두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영원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서는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부모 자식 관계처럼 피를 받아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육체의 것이고 그 육체는 잠시 후면 다 벗어버릴 것이므로,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내 부모, 내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지속되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관계는 혈육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을 때 맺어지기 때문에 육신이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죽어 이 세상을 떠나면 영적 관계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지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께서 구분되어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히12:9).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신분을 받았습니디.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복을 받은 신분이지만 나의 생각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로 불행한 옛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은 출애굽하였지만 그 생각이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생각이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은혜를 베푸는 자라'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사는 습관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항상 은혜를 채움 받아서 사는 자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임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넘치게 받는 생각의 훈련을 하여야 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것을 버리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벗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우리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베풀어주는 습관을 이제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베푸는 것은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루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으면 자신의 신분이 변화 된 것을 알고 보아스의 신분과 그의 재산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사를 잡고자 나간다면 그 생각이 아직 옛 루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너는 내 자녀이다. 너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재산을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의 재산을 많이 쓰면 이자가 엄청나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인생할수록 그 사람은 인색하게 삽니다. 마음에 있는 재산을 많이 쓰십시오. 자기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너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고 하십니다. 부부기간에도 이것을 잘 써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어울리게 살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닮았습니디. 아버지를 크게 가지십시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이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신분으로 은혜를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았으니, 많이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나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흘러 나갔는가?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얼마나 흐르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르게 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삽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축구 전쟁

온 세계를 흥분시켰던 월드컵 경기는 연장후반 8분을 남기고 독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찍 패배의 고배를 마신 우리 한국대표선수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휴식을 치루고 있습니다. 16강의 꿈은 사라졌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전망이 불투명하며 아우성치는 고국의 팬들에게 입국장에서부터 '앗'을 뒤

집어쓰는 치욕적인 모멸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비단 한국대표선수들뿐 아니라 개최국인 브라질이 독일에게 1:7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골 차이로 완패하게 되자 광분한 민중들은 버스 20대를 방화하는가 하면 거리거리 예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남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브라질은 과거

1950년 승리를 장담했던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자 경기장에서 심장마비로 2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하니 그들의 축구에 대한 관점과 열정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4년 미국월드컵경기에서 콜롬비아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1994년 월드컵은 콜롬비아의 승리를 점칠 만큼 강력한 우승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예선 1차전에서 콜롬비아는 루마니아에 1-3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미국과의 2차전에서는 안드레아스 에스코바르(콜롬비아 선수)의 자살골로 선취점을 내주며 1-2로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선탈락이 확정되자 온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마약조직인 '메데인카르텔'은 "선수들이 귀국하는 대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에스코바르는 수 홀로 조용히 귀국하게 되었는데 얼마 뒤 고향인 메데인시의 한 나이 트클럽에 들렀다가 괴한에게 피살

되게 됩니다.

축구전쟁(La guerra del fútbol)은 1969년 발생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간의 전쟁이며 이른바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축구전쟁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물론 단순한 축구의 승패문제만은 아니며 양국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잠재된 갈등의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1970월드컵 북미예선전 중에 발발한 폭동과 맞물려 발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축구의 뒷이야기는 콜롬비아나 브라질 같은 극단적인 면과 극단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아름다운 축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과 영국 양국 병사들은 약100미터 앞에 대치하며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양국 병사들은 처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 가운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치중이던 양군 병사들은

서로 조율하게 크리스마스를 각각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캐롤송을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성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양군 병사들은 전사자들의 시신을 정리하고 수습된 터에서 축구팀을 급조하여 양국 간에 축구 경기를 하며 함께 잠시 전쟁의 시름을 잊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 결과는 3-2로 영국이 독일에게 패했고 밤이 되자 이들은 같이 캐롤송을 부르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한 다음에 각자의 군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일로 인해 양국 군사들은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에게 감동적인 사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FIFA월드컵의 역사는 1928년 당시 FIFA회장이었던 쥘 리메가 국제적인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데서 시작됐다고 전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번째 FIFA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때 초청 받았던 팀은 단 13개국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세계 200여 개국

이 넘는 국가대표들이 출전하여 2년에 걸쳐 예선전을 치른 후 본선에 출전하는 32개국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한국 성인남자라면 누구나 축구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별다른 놀이문화가 없던 시절 흙먼지 날리는 동네골목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며 뛰어놀았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청년 때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며 청춘의 기운을 발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월드컵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서로 이해와 협력을 추구하며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경기모습과 고국의 축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월드컵의 본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같습니다. 아무쪼록 월드컵경기가 서로를 이어주며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순수한 경기가 되길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푸 / 른 / 초 / 장

이규현 목사

(부산 수영로교회)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언제나 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면 신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참 신비롭습니다. 몸 안에는 우주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로워서 의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단순히 어떤 조직체나 기관, 단체,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보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공동체의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하는 구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수많은 신경조직이 있고, 미세한 혈관이 연결되면서 이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려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원들도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파르도 있고, 약기도 있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지휘자와 반주자가 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은 없

행해지는 것은 공동체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부터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흘로 있을 때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으로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고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내 끼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몸이라는 개념은 개인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영방식이나 모든 것들의 핵심은 몸이 하나 되는 것 서로

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몸을 깨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잘하고 능력이나 재능 실력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좀 더 되고 못하더라도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신앙의 변화는 결코 혼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혼자 신앙 생활하며 구경꾼으로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안에 들어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 교회

(로마서 12장 4-5절)

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세포가 있다면 그것은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 안에 있다면 서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이고 유대적인 긴밀한 관계 속에서 몸이라는 존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도 독립되어 있지 않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한 몸 안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눈이든 코든 입이든 위장이든 폐장이든 몸의 한지체로 내가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섬길 때에도 이것이 단순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교사로서 잘 양육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좋은 일원이 되고, 나의 손자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몸 밖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순절의 성령사건을 통해 일어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음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개인주의가 해체되고 나만 중요하지 않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행정의 방식, 사역, 모든 것 안에 최우선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엡4:3-4)라고 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성령도, 소망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데 힘을 써야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성품훈련입니다.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한 것

부터 기도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아버지'는 나쁜 아니라

예배에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굉장히 불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아버지'는 나쁜 아니라

자기주장이 강하고 모가 난 성품

자기주장이 강하고 모가 난 성품

자기주장이 강하고 모가 난 성품

제 7 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The Great Vision Church)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대상

High School Senior, College, Graduate School

자격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 장학금: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제출서류

- 신청서 교부 - facebook group "Grea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4" 에서 다운
-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 증빙서류- 일반 장학금: 성적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목회 장학금: 재학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 출석 교회 주보
- 수여금액: 대학생 (\$1,000), 고등학생 (\$500)

접수마감

2014년 8월16일 소인

접수처 및 문의

우편접수 : 청운교회장학위원회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장학금 수여식은 2014년 8월 31일(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와 8월 18-22일까지 개별통보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운교회
The Great Vision Church (CRC)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써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한 싸움”의 승리-신앙을 고수한 기업인들

6월 30일, 워싱턴DC의 연방대법원에서는 크리스천들의 매우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기독교 기업들의 승리인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하비라비회사로서 지난 2012년 9월 오바마케어(ACA)가 기독교 신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하루에 130만 달러의 엄청난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선한싸움, 그 치열한 영적 가치관의 싸움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본지 1491호 1면 참조: 편집자주].

하비라비는 어떤 회사이며 누가 운영하는가?
하비라비는 미국 대형 공예품

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비라비는 여러 재판에서 패배하기도 했으며 오바마 행정부와 여러 반기독교 단체들로부터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선한싸움을 하여 지금의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지난 1993년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인 '종교자유회복법' 즉, 정부의 제약에 대해 종교적 행위를 보호하려는 법안에 의해 통과된 것인데, 보통 RFRA라는 법안은 기독교 기업에 해당은 되지만 주로 비영리 단체에만 적용이 되어왔기 때문에 RFRA가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영리기업들의 종교적 자유에 대해 손

때도 3명의 여성판사들인 Sonia Sotomayor, Ruth Bader Ginsburg, Elena Kagan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비라비가 오바마케어에 들지 않을 경우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 직원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했는데 이중에는 동성애자 판사도 있고 최소한 그들이 친동성애 여성판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비라비의 회장인 데이빗 그린리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케어에 그가 소송을 건 이유는 “생명이 물질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익을 내는 것 보다 중요하다”라고요. 미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미디어와 세상 언론들은 마치

오바마케어와 싸운 하비라비, 하루 130만달러 벌금 감수 코네스토가 가구, 휘튼대 등 잇달아 승소...영적전쟁 계속

도매회사로서 라스트네임이 그린 (Green)이라서 그린패밀리 기업이라고 불리 올만큼 큰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올해 72세가 된 데이빗 그린 회장이 1972년 아내 바바라와 함께 기도하며 300스퀘어피트밖에 안되는 작은 차고에서 6백달러로 시작한 이 회사가 지금은 미국 41개주에 500여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며 3만5천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2013년에는 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데이빗 그린 회장은 회사성장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뿐이다” 데이빗 그린 가족들은 신앙이 매우 독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전파와 성경배부에 적극적인 데이빗 그린 하비라비의 사장 데이빗 그린 회장은 17년째 매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마다 미국 전역의 주요 신문에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예수님탄생과 부활을 알리는 전면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선교단체들의 재정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하비라비 회사의 선언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따라 회사를 운영하며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까지 변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우리는 믿는다.’

오바마케어 VS 하비라비 기업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매달 보험비 일부는 그들이 후원하고 지지하는 낙태, 낙태약, 또는 성관계시 사용되는 물건들의 후원금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비라비 가족들에게 있어서 회사전체가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큰 문제가 되었죠. 따라서 2012년 9월 당시 오바마케어를 감당하고 있던 국무총리인 Kathleen Sebelius를 상대로 “Sibelius vs Hobby Lobby”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선한 싸움 끝에 승리를 거둬!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5-4로 ‘고용주가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및 성관계 때 사용하거나 낙태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담하고 싶지 않을 경우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판명으로 하비라비 회사

를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연달은 승리의 소식들 같은 날 6월30일 그린패밀리가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천 책방 체인점인 Mardel Christian & Education store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 코네스토가 우드 스페셜리스트(Conestoga Wood Specialist)라는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가구를 만드는 기업 역시 오바마케어를 직원들에게 가입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지요! 또 지난주 7월 3일에는 휘튼대학교도 오바마케어에 관련한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하비라비와 같은 소송의 승리는 신앙의 자유 법안을 허락한 사무엘 알리토(Alito) 판사와 정부가 신앙의 자유까지 뺏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 케네디(Kennedy) 판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영적 가치관 전쟁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하비라비와 같은 영리기업이나 학교들은 교회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반발해왔으며 이번 연방대법원에서 5-4로 판결을 내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한국이 과거 쇠국정책을 펼 때 외국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인지요? 그리고 핍박을 받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최초의 개신교 신자는 누구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A: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Robert J. Thomas, 1839-1866)라는 선교사입니다. 총신의 박용규 교수가 쓴 ‘평양 대부흥 이야기’란 책을 보면 토마스 선교사는 1863년 12월에 영국 런던대학을 졸업한 후 동양의 선교에 불타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도착합니다. 그는 갖 결혼한 아내 케틀라인 갓프리과 함께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임신 중인 아내는 이국 생활에서 오는 충격에다가 중국의 기후가 잘 맞지 않아 심한 고생을 하다가 유산을 하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 절망을 달랠니다. 그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해도 창린도에 와서 2개월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충분한 한글을 익힙니다. 그런 후에 그는 1866년 제너럴 서먼호(General Sherman)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에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합니다. 그는 1866년 8월1일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당시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죽인 박춘권이 영수 돼

대원군 치하의 한국은 쇠국정책을 쓰고 외국과 접촉을 끊고 있었기에 박용규라는 평양감사는 그 배를 볼 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타자 사람들이 몰로 나오자 군관들이 한사람 한사람 다 칼로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몰로 나온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였는데 그는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빼어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춘권에게 무릎을 꿇고 앞드려 가지고 온 성경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잠시 머리를 숙이고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는 다시 성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졸은 성경받기를 거부하고 이내 그를 칼로 내리치며 처형했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피를 흘리며 첫 한국 개신교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지 2년 반 만에 아내의 뒤를 이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터틀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순교로 인한 교회의 씨는 토마스가 순교하던 바로 그날부터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 병졸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그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여가면서도 내게 그렇게 건네주려 했을까?” 생각해 동료 몰래 그는 대동강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책을 주워 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박춘권은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그는 예수를 믿고 훗날 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그 성경을 잃게 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그는 평양 숭실대학에 진학하여 졸업한 후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 우리가 갖고 있던 한글 성경 2/3를 번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26살의 영국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한 알의 밀이 되어 한국 교회에 최초의 신자를 만들어 내었고 한국교회의 태동과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신간

464면 / 17,000원

예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가?
한국교회에서 예수영성의 회복을 부르짖는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의 오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책. 『예수 제자의 삶』 --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마리아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
두 시리스로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
『예수 제자의 삶』이 제시하는 예수 제자 된 삶을 이제 펼쳐보자.

320면 / 14,000원

생명의 숲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7-8

이윤재 목사의 다른 저서들

- 성경의 은유 508면 / 17,000원
- 변화 344면 / 12,000원
- 생명의 초청 272면 / 10,000원
- 성령이 임하시면 240면 / 9,000원
- 광야의 영성 256면 / 8,000원
-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250면 / 9,000원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담펠라스(DAMPELAS)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구성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방어와 침략을 위해 이들 사이에 때때로 맺어진 연맹체의 역사다. 담펠라스는 토미니(Tomini)라는 좀 더 큰 종족의 일부다.

삶의 모습

전통적으로 토미니 사람들은 숲탄에 의해 지배를 받았다. 각 부족은 세습 족장과 그 보좌인들이 이끌고 있다.

1950년 후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분리주의운동이 술라웨이 전역에 걸쳐 젊은 층에 의해 일어났다.

스타 항쟁(Pemesta Rebellion)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없었다.

고산지역에서는 쌀과 옥수수 그리고 사고(sago) 식량 또는 옷감을 풀 먹이는데 사용하는 야자에서 추출한 녹말을 재배한다.

자줄기를 수확하기도 한다. 결혼은 무슬림의 전통을 따르며 신부의 가격을 협상하는 중재자에 의해 준비된다.

신앙

이슬람교는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교이며 담펠라스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와 도교의 가르침을 따른다. 정령종교(사람이 아닌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종교)는 오지의 사람들에게 의해 숭배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담펠라스족에 대한 기록정보나 자원들은 거의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보코하람 납치 여성 소녀 등 60여명 탈출

지난달 22일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의 한 마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보코하람에 납치된 여성과 소녀 등 60명 이상이 탈출했다.



보코하람은 지난 4월 보르노주에서 여학생 200명 이상을 납치해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미국과 영국이 전문가 팀을 파견해 수색·구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역 자경단원 지도자 아지 칼릴은 "60명이 넘는 여성들이 보코하람에 납치됐다.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강제 끌려갔다. 달아나려고 했던 4명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그동안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ISIL이 점령한 모술, 기독교인 1만명 피란

"모술이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모든 여성은 머리에 서발까지 완전히 가려야 하며, 여성은 일을 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들은 신앙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 인근에서 난민을 돌보고 있는 현지인 A목사는 최근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 점령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전문가들은 ISIL의 과격성을 우려한다. 카심 아타 이라크군 대변인은 "ISIL의 국가 수립 선포는 모든 국가가 위협에 처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로 이들의 잔인성은 악명이 높다. 지난달 29일 칼리파제 이슬람국가를 찬양한 직후 모술 인근 시아파 성지와 초기 기독교 교회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을 폭파했다.

기독교 매체 CBN뉴스는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의 작은 마을인 알코쉬에 기독교인이 피신했다"며 "이들은 모두 ISIL의 공격을 피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2003년부터 내전과 전쟁 속에서 핍박받고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고국을 떠났고 그나마 자기 땅을 지키며 살아간 '최후의' 기독교인들마저 이제 위협받고 있다.

미국인 가운데 성 소수자, 즉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라고는 극소수였다. 이라크 전체 기독교인은 2010년까지 50만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30만명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요셉 중동아프리카연구소장은 "이라크 기독교인은 ISIL이 지하드 세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에 위배될 경우 살해를 합리화한다"고 말했다.

"중미 아동 밀입국 막아야" 미 목사 등 주장

중앙아메리카(중미) 어린이와 청소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지난 10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를 수 영장이 달린 집 주인에 비유하며 "수영장 주변에 울타리를 치지 않아 이웃집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다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집 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며 "미 정부가 국경 경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은 중미 아이들을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인 100명 중 3명이 성소수자

미국인 가운데 성 소수자, 즉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비율이 약 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1.6%, 양성애자라고 간주한 사람은 0.7%였다.

"잘 모르겠다" 혹은 "기타"라는 답변은 1.1%였고, 나머지 96.6%는 통상적인 이성애자라고 답했다.

지난 한해 동안 미국인 3만3천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연방 보건당국 차원에서 실시된 성소수자 현황 집계 중 가장 광범위하다고 평가된다.

호주인 10명 중 7명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

호주인 10명 중 7명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동성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나라지만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크로스벡텍스터가 호주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제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했던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이며, 이미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뉴질랜드나 영국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크로스벡텍스터는 밝혔다.

호주 집권 여당 대표이자 강경 보수파인 토니 애브츨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크로스벡텍스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날 야당인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라이언헬름 상원의원이 애브츨리에게 여당 소속 의원들의 양심투표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의원들의 세를 모아 연방결혼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공개했다.

호주에서 최근 올림픽 수영 영웅인 이언 소프가 동성애자란 사실을 공개하는 등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2014 기도성회

-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가버림 금식기도원
6일 영원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산교회(한기형목사)
2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최성은목사)
4일 ~ 7일 GST 30th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일 신국기도원(한기재목사)
4일 성문교회(김대석목사)
5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동인 신세계교회(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7일 ~ 9일 월평동신교회(조은일목사)
11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7일 ~ 9일 월평동신교회(조은일목사)
11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함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21일 ~ 23일 오병이여교회(김형재목사)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일 ~ 5일 예루살렘교회(류병희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지동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종열목사)

4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 3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사메트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21일 ~ 23일 오병이여교회(김형재목사)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일 ~ 5일 예루살렘교회(류병희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지동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종열목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0)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De Standaard지의 편집인과 주필

1872년 스탠다드(De Standaard)지는 일간지로 출발했다. 카이퍼는 이 신문사의 편집인 및 주필로 책임을 맡았다. 스탠다드지는 반혁명당의 기관지이기도 했다. 카이퍼는 이 신문의 사설을 통해서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 곧 기독교 정치의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 계몽을 했다. 카이퍼는 당 총재로서 일간지 편집주간을 계속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더구나 그는 주간지 헤라우트지의 편집과 논설을 같이 쓰면서 말이다. 이것은 천재적인 신학자요 문학가요 칼빈주의 사상가인 카이퍼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스탠다드지는 카이퍼의 입이고 손이었으며, 그가 정치 지도자로서 기독교 정치에 이론과 실재를 쌓고 당권과 정권 창출을 하게 된 동기가 된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카이퍼는 이 신문 글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방어하고 교회와 사회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성경적 기독교의 부흥을 꾀했다. 더구나 세속화된 사회에서 경건한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외쳤다. 일간지 발행은 카이퍼의 오랜 숙원이었다. 국민들에게 좀 더 빠르게 카이퍼 사상과 삶 그리고 보도를 보내기 위해서 주간지 헤라우트지로는 한계가 있었

다. 그래서 카이퍼 주도하에 일간지 스탠다드지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카이퍼는 주간지 헤라우트지를 갖고 있는 터라, 일간지 스탠다드를 매일같이 내고, 헤라우트지는 토요일마다 스탠다드지의 주간 신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일간지 발행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카이퍼 박사는 양쪽 신문의 편집장을 겸임하겠다고 동의했다. 카이퍼의 그런 결정은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대 성공이었고 교회와 정치와 신앙생활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심

는 일에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카이퍼는 1872년 4월1일 스탠다드지에 첫 번 논설을 발표했다. 첫 번 사설에서 카이퍼는 이 일간지 신문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했

다. 사실 신문 발행일을 그날로 잡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1872년 4월1일은 300년 전 스페인 과 80년을 전쟁 중에 화란이 대국 스페인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었다. 이 위대한 승리의 날은 국민이 그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전 국민적이고 애국적인 열정이 최고조에 달할 그날을 택해서 스탠다드지를 발행했다. 이는 매우 상징적 이면서 개혁주의 성도들과 반혁명당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사람들 중에는 카이퍼가 일간지와 주간지의 편집과 주필로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염려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그는 이 작업을 5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뜬히 해냈다. 더구나 당의 총재로서 하원의원으로서 수상으로서 각종 설교와 강연의 그 바쁜 틈에서도 카이퍼는 흔들림이 없이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 그의 초인적인 저널리스트로서의 활약은 하늘이 준 영감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본래 스탠다드지는 그보다 2년 전인 1869년에 일간지 "기독교적 국가"(Christelijk Nationaal)라는 타이틀로 발행되고 있었으나 제정문제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자

의 논설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국민적 실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주장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고 허물과 죄로 타락한 인간과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안내자라고 했다.

1873년 10월29일자 스탠다드지 논설을 통해서, 기독교 정치가로서의 카이퍼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여금 그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시대의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화된 원리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인의 양심도 성경에 기초하며, 기독교적 정치적 영성과 감각도 결국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카

를 배제하고 성경적이며 신본주의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화란 역사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했다. 과거 종교 개혁자들 일구어 놓은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은 우리시대의 합당한 형식으로 항상 변형되어야 한다는 것이 카이퍼의 지론이었다.

첫 번째 원리는 정치개혁을 하고 민족적 양심을 일으키고 독재에 대항하려면 그것은 개혁주의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혁의 개념으로서의 개혁사상이란 과거지향적 수구적이지 않고 항상 성경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주권적 권위의 원천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진원지를 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국민 주권론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앞세웠다.

두 번째 원리는, 결국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언했다. 사실 이 원리는 로마서 13장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오렌지 왕가의 경우처럼 정치적 주권을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법적 지도자에게 위임했다고 했다.

세 번째 원리로서, 정치적 영역에서조차 반혁명주의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구불변의 원리로 고백하는 것이다. 즉 성경이 정치에 있어서 규범이 된다는 것을 고백했다. 카이퍼는 성경을 정치의 원리로 삼되,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호소하면서도,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민주적이고 합헌적 태두리 안에서 정치를 하도록 격려했다. (9면으로 계속)

스탠다드지 통해 기독교정치 이론과 실제 쌓고 정권창출 동기 삼아 반혁명운동은 정부통치권이 하나님 은총에서 온다는 통치원리 고백

다. 그래서 카이퍼 주도하에 일간지 스탠다드지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카이퍼는 주간지 헤라우트지를 갖고 있는 터라, 일간지 스탠다드를 매일같이 내고, 헤라우트지는 토요일마다 스탠다드지의 주간 신문으로 나오게 되었다.

다. 사실 신문 발행일을 그날로 잡은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이 많다. 왜냐하면 1872년 4월1일은 300년 전 스페인 과 80년을 전쟁 중에 화란이 대국 스페인을 물리치고 승리한 날이었다. 이 위대한 승리의 날은 국민이 그 위대한 승리를 자축하고 전 국민적이고 애국적인 열정이 최고조에 달할 그날을 택해서 스탠다드지를 발행했다. 이는 매우 상징적 이면서 개혁주의 성도들과 반혁명당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카이퍼가 이를 인수해서 반혁명당의 기관지와 일간지로 발전시키고 기존의 헤라우트 주간지는 일간지 사이에 발행하는 것으로 했다.

스탠다드지가 카이퍼의 손에 들어오자 일간지는 활력이 살아나고 부수가 늘어나고 재정문제가 해결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 건설은 물론이고 반혁명주의 사상 전파에 최전방에 서게 된 것이다. 스탠다드지를 통해서 카이퍼는 반혁명의 원리와 정책 입안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깨웠다. 카이퍼는 스탠다드지

이퍼에게 있어서 신문의 글, 즉 매일 쏟아내는 사설은 바로 반혁명당의 사상과 삶 그리고 진로를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1879년 4월3일 사설에 쓴 반혁명주의의 계획서는 21개조의 원리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전반부 5개 조항은 근본 원리인데, 카이퍼는 여기서 개혁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카이퍼가 천명한 반혁명주의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이 개요 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반혁명운동 즉 철저히 인본주의 요소

가정사역 칼럼



외도시 해서는 안되는 것들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와 배우자 자녀들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충실한 배우자는 마치 칼에 베인 것 같은 가슴 아픈 고통을 겪게 되고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진다. 남성이건 여성이건간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이 자신의 일생에서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충실했던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더욱 더 싸울 일이 많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 다음의 내

용은 외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다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헨리 버클러가 기술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적어 보았다.

배우자 외도 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1. 현재의 위기가 당신의 삶 전체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2. 당신의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
3. 정말 필요한 사람 외에는 배우

자의 외도에 대해 알리지 말라.

4. 부정한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말라.
5.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와 같은 무력한 의존 상태로 무너지지 말라.
6. 좋은 짝이 되어 주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지 말라.
7. 배우자의 연인에게 가서 싸우거나, 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에게 공격을 가하지 말라(보복은 배우자가 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만

을 자극하여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더욱 벌어지게 한다).

8. 남편이 애인과 함께 도망을 가도 당황하지 말라.

9. 맞바람을 피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려 하지 말라.

10. 화장이나 새로운 복장, 다이어트의 시도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라.

11.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의 서약을 언급하며 불잡아 두려고 노력하지 말라.

12.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배우자에게 결혼생활을 회복시키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성급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최후의 통첩을 하지 말라.

13. 변호사를 고용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혼담당 변호사들은 부부들로 하여금 양심을 품도록 부추기고 종종 불화에 불을 붙인다. 각 사람의 변호사들이

부부 간의 싸움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정말 다른 방도가 없을 때만 변호사를 선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불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경우 이혼하는 과정을 길게 함으로써 변호사의 수임료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두 부부의 재산의 절반을 변호사가 갖게 되고 나머지 재산의 절반을 남편과 아내가 나누어 갖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때론 두 사람의 은밀한 사생활은 환히 드러나고(예: 심지어 집안의 시시콜콜한 비밀들, 성생활의 횡수 등)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날 때까지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진행되고 부부는 지치게 되며 마지막 남아있던 배려나 존중의 마음은 적대감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마지막까지 합의를 볼 수 없을 때는 그때 가서 변호사를 고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경우, 피해자인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외도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시에는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남편은 외도관계를 청산하게 된다. 하지만 너무 쉽게 관계가 회복되리라 기대하지 않도록 하라. 특히 신중한 생각 없이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변화를 주지 말라. 외도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풀이하여 묻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울 경우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가정 상담자를 찾도록 하라.

배우자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건강한 자신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거나 상담자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삶을 추스리도록 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기독교 이단 대책 세미나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목사)

2525 James Wood Bl., LA, CA 90006

전화: (213)487-3920

강사 이인규 (대림감리교회) 약력

-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연구위원
- 사이비종교피해자연맹 이단상담소장
- 이단상담아카데미 전문강사
- 현대종교 및 교회와 신앙 이단상담자문위원
-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대표
- 기독교이단대책협회 전문위원
- 한국기독교이단상담협회 전문위원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원

후원: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크리스천 투데이,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복음방송, 미주 기독교 방송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실제역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세상 과학자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도 한 차원이 더 높은 수수께끼가 있다. DNA가 먼저인가 단백질이 먼저인가?

단백질은 생명체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사를 빠르게 하는 일, DNA 읽기와 복제, 외부자극들에 대한 반응, 물질수송, 세포 구조물 등 세포의 거의 모든 골격과 활동을 담당한다. 따라서 단백질은 물을 제외한 세포 무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생물 종류에 따라서 각 세포에는 수천 혹은 수만 가지의 단백질이 존재한다. 각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들이 마치 실에 꿰 구슬처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그림). 보통 50개 이하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있는 것을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라 부르고 그

창조과학 칼럼 (196)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5) DNA가 먼저, 단백질이 먼저?

어저 있다. DNA 코드는 64가지인데 아미노산은 20가지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해 복수의 DNA 코드가 그림의 표

여성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도록 매개하는 내가 없었다면, 그리고 도

씩 단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시에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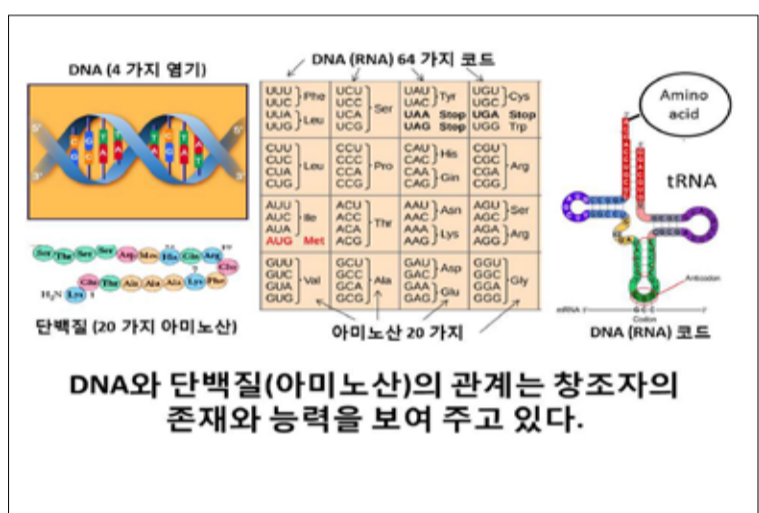
어떤 진화론자들은 생명체의 정보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원숭이가 계속 타이핑을 하다보면 의미가 있는 단어가 생겨날 수 있고, 확률이 무지하게 낮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수억 년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문장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의미를 가진 DNA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듯한 껀이다. 그러나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이핑을 하여 우연히 성경책을 썼다 해도 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원숭이에게는 아무 정보도 아닌 것이다. 이미 그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존재가 먼저 있어야 그것이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DNA 정보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진화론적인 생각은 현실성이 없다.

점진적으로 세포의 부품이나 기관들이 만들어질 수 없어 "모든 생체 부품들은 동시에 존재 시작" 논리적 창조설명

이상을 단백질(protein)이라 한다. 그런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순서는 DNA의 정보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DNA가 먼저이고 단백질이 나중일까?

DNA의 정보에 맞춰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필요하다. DNA의 정보를 읽는 일, 이 정보를 RNA로 복사해내는 일, 이 복사된 정보를 읽고 원래 DNA가 지시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도 단백질이 맡아서 수행한다. 따라서 이런 기능을 가진 단백질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DNA는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DNA를 읽을 수 있는 단백질이 먼저 있어야만 DNA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DNA보다 단백질이 먼저 존재했던 것일까? DNA와 단백질의 관계는 닭과 달걀의 관계보다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다.

DNA와 단백질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을까? 사실 DNA와 단백질은 구조나 성분 면에서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자들이다. 생명체에서는 3개의 DNA(염기)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코드(codon)가 된다. DNA염기는 4가지가 있으므로 3개의 염기로 구성된 64가지의 의미 있는 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표). 이 64가지 각각의 코드에는 한 가지의 아미노산과 관계가 지



럼 배정되어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DNA 코드와 아미노산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중간에 tRNA(transfer RNA)라는 것이 DNA와 아미노산을 중개하여야 DNA의 의미가 실제화 되게 된다. tRNA에 끝에는 특정 아미노산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중간에는 RNA(결국은 DNA)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루프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이런 DNA-tRNA-아미노산의 연쇄적인 일련의 관계들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을까?

DNA-tRNA-아미노산의 연쇄적인 일련의 관계들은 마치 나의 부모님-나-내 아내의 연결고리와 유사하다. 나의 부모님과 내 아내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나의 부모님은 지금은 내 아내가 된

와주는 지인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 가족관계는 존재할 수 없었다. 아무 부모가 아니고, 아무 여성이 아닌 꼭 그 부모와 꼭 그 여성의 관계가 저절로 맺어진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DNA-tRNA-아미노산의 관계일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자가 없다면 이 관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단백질을 보면 DNA가 먼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DNA를 생각해 보면 단백질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 DNA와 단백질의 상관관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 질문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결론은 DNA와 단백질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가지

이 뿐 아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DNA 정보를 읽고 복사하고 운반하는 모든 활동에는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도 역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있다. 에너지가 먼저 있어야 할까 DNA와 단백질이 먼저 있어야 할까? 결국 작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포의 거의 모든 기관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진화론적인 설명대로 점진적으로 세포의 부품(molecule)들이 만들어질 수 없고 점진적으로 세포(cell)로 구성된 기관(organ)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 모든 생체 부품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창조가 가장 논리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생명체 속의 DNA와 단백질 그리고 모든 생체 부품들은 다음과 같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새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1:11, 20, 24).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행복한 영재를 만드는 성품양육

'영재는 타고 나는가? 아니면 길러지는가?' 200년 전 독일의 한 마을에서도 이 문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영재가 유전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단 한사람 칼 비테(Karl Witte, 1767-1845)만은 영재가 교육과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토론에서 참패했지만 훗날 자신의 아들을 위대한 영재로 길러냄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칼 비테의 아들은 엄마조차 포기할 정도로 우둔하였으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주변 환경이나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했다. 그 결과 아들은 다섯 살에 3만개의 단어를 익히고 열 살에는 라이프치히대학교에 입학해 열세살에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열여섯살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해 베를린대학에서 법학과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83세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오랫동안 뛰어난 영재의 삶을 살았다.

같은 아들이 지혜로운 뿐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래서 좋은 성품으로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아들이 좋은 성품을 나타낼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훗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늘 칭찬으로 나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내가 덧셈과 뺄셈을 익힌 날 아버지는 작은 파티를 열어 나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는데 나는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덕분에 곱셈과 나눗셈도 자신 있게 배울 수 있었고 나중에는 대수학과 기하학도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었다..."

칼 비테는 늘 격려의 말과 행동으로 아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편 아들이 교만해질까 우려하여 행복한 인간관계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항상 겸손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맺도록 당부했다. 이러한 성품교육 덕분에 칼 비테의 아들은 지식과 성품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했다.

한국의 경우 올해 전국의 영재학교 입학경쟁률이 평균 20대1로 학부모들의 높은 영재 교육 열기를 반영하였다. 그러나 영재교육이 지식과 재능교육에 집중함으로써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재들이 많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를 보면 그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교우관계(4.5%), 성격(18.2%), 수업에 대한 흥미부족(16.7%) 때문이었다. 결국 영재아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아는 인재로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성품 교육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성품교육이란 '교육을 통해 생각, 감정, 행동에 각각 의미 있는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영숙 2005)이다. 성품교육의 목적은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켜 그를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

문제는 영재아 성품교육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영재아 부모들이 자녀의 영재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오히려 아이의 좋은 성품 형성을 방해한다. 이런 실수는 미국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영재아 부모들이 자녀의 지적 능력과 성취 여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었다.

보통 영재아의 부모들은 자녀가 뛰어난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압도하기를 바란다. 이는 자녀에게 '너의 가치는 남들보다 뛰어난 영재성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부모가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자녀들은 영재성을 칭찬받을 때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칭찬받지 못할 때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어 좋은 성품을 개발하는데 장애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와 사회 구성원들이 영재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성품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새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JUST SAID COME TO ME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동부교계 기사판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뉴저지교협, 2014 호산나복음화대성회 개최

제 3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대회
제 3차 PGM 세계전문인선교대회 및 선교사대회는 10월 필라델피아(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

뉴욕목사회 이단대책 세미나
뉴욕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 세미나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창작클리닉 7월 모임
창작클리닉(대표 박상희 권사)이 주최하는 7월 시와 문학예술작품 및 강좌가 오는 26일(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뉴욕한인문화센터(KCS) 강당(35-56 159 St, Flushing)에서 열린다.

퀸즈한인교회 설립45주년 기념감사예배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오는 27일(주) 오후 5시 기념감사예배를 드린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가 주최한 제 26회 호산나복음화대성회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드와이트로 고등학교에서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됐다.
뉴저지 교협은 올해부터 대회를 '호산나 전도대회'에서 '호산나복음화대성회'로 바꿨으며, 주제는 "믿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로 정했다.



호산나복음화 대성회에서 호성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욕원로목사회 7월 월례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7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7월 월례예배가 지난 8일 뉴욕 성서교회(담임목사 김종일 목사) 초청으로 선전메도우 파크에서 열렸다.
예배는 회장 소의섭 목사의 인도로 김동욱 목사의 기도, 임지웅 목사의 클라리넷 독주, 김종일 목사의 설교, 김수현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를 맡은 김종일 목사는 "선배목사님들의 뒤아흔 터 위에서 현재 목회를 잘할 수 있게 돼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하"고 전한 뒤 "가장 좋은 설교는 '은혜 많이 받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며 영접의 시간을 가졌다.
호 목사는 둘째 날 "믿음의 과정인 순종을 회복하라"(행12:1-12), 셋째 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행8:1-8)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사흘간의 호산나복음화대성회 사회는 허상희 목사 장문선 목사 안성훈 목사, 기도 이성일 목사 윤명호 목사 이병준 목사, 성경봉독 이경민 목사 장문선 목사 최재형 목사, 헌금 기도 박정희 목사 이은희 목사 이은혜 목사, 축도는 안명훈 목사 양준길 목사 유재도 목사가 맡았다.
찬양과 경배는 뉴저지만나교회와 소망장로교회가 담당했으며 찬양은 뉴저지만나교회, 필그림교회, 베다니교회 찬양대가 섰다. 헌금특송은 뉴저지권사함정단, 뉴저지장로성가단, 뉴저지목사함정단이 섰다.
(정리: 유원정 기자)



지난 8일 가든노회 임시노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KAPC 가든노회 첫 임시노회 노회장 조문선 목사 등 임원 선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뉴욕노회(노회장 손한권 목사)에서 분립된 뉴저지메트로노회가 '가든교회'로 명칭을 정했다.
가든노회는 지난 8일 오후 분립 후 첫 예배를 드렸으며 당일 임시노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회회장 조문선 목사(뉴저지개혁장로교회) △부노회장 이원호 목사(중부뉴저지장로교회) △서기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부서기 박형기 목사(행복한교회) △회록서기 이종식 목사(좋은땅교회) △회회록서기 이준성 목사(양무리교회) △회계 김충남 장로 △부회계 허철회 장로.
회의에 앞서드린 예배의 설교는 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창세기 37:5-6, 18-19절을 본문으로 "새노회 새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총회서기 최동진 목사의 사회로 총무 공재남 목사의 기도 후 설교경위보고 총회서기, 가든노회 설립공포 총회장, 축사 조영길 목사, 축도 정관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든노회는 첫 임시노회를 열고 공천부 부장 김두해 목사, 서기 허상희 목사가 사임보고 및 임원 발표를 했다. 회의는 노회장 조문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가든노회)

살롱장로교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성료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주최한 여름어린이성경학교(VBS)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이번 성경학교는 7년 만에 다시 열려 교우들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환영을 받았다.
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3배 가량이 참석한 이번 VBS는 찬양으로 시작해 설교를 듣고 분반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분반공부 교재는 Blast Off(Launching kids on a Mission of God's Love)를 택했으며 과선신 전도사와 정준승 교육목사 그리고 청년 교사들이 담당했다.
점심과 간식은 학부모들이 준비했으며 마지막 날 오후에는 교사와 학생 전원이 Discovery Place를 견학하며 현장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부터 함께 자리하며 어린이들과 교제를 나눴던 담임 나성균 목사는 "이번 여름어린이성경학교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전문가들과 청년 교사들 그리고 종교 등 부보교사들을 비롯해 온 교우들이 현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독교 부흥운동의 확실한 방법인 4/14 무브먼트를 펴는 기간이었다"며 "진짜부터 실행해야 할 일이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눈물과 감동의 3대에 걸친 모녀 이야기 극단 MAT 창작뮤지컬 "엄마 엄마" 공연

뮤지컬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극단 MAT의 세 번째 정기 공연작인 창작 뮤지컬 "엄마 엄마"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플러싱메도우코로나 파크 내의 퀸즈극장에서 공연됐다.
작품은 임흥주 공동대표가 쓰고 곡은 황진경 음악감독이 맡았으며 출연진으로 최유진, 박지은, 이은정, 박영진, 윤미나, 강현주, 최훈민, 김동주 등 화려한 경력의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하며 특히 아나운서 겸 배우 임정진이 특별출연했다.
극단 MAT는 뉴욕에서 활동하던 성서뮤지컬 전문극단 '여디디아대



극단 MAT 창작뮤지컬 "엄마 엄마" 공연 모습

표 송태경)와 연극전문인들의 극단 '메타 퍼포먼스 그룹(대표 임흥주)'이 2011년 통합 창단해 첫 작품 '자화상'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두 번째 작품인 '6개월 클럽'을 공연했다.
이 작품은 올 봄 퀸즈한인교회(담임 이규섭 목사)에서 공연한 바 있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es, phone numbers, and websites.



National Council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장로교(PCUSA) 총회의 결정과 우리의 입장

1. 미국장로교 221차 총회는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는 시민계약“(헌법 W-4.9001) 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목사와 당회는 자신들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동성결혼을 집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은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위의 총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기존의 결혼의 정의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Between two people, traditionally a man and a woman) 결합으로 수정하자는 안건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수정안의 최종 결정은 1년 내에 171개 노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이번 결정의 중요한 점은, 목사와 당회는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긋난다고 확신할 때는 집례를 거부하고, 결혼식(건물사용 포함)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도, 강요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성명서(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NCKPC)는 금번 221차 교단총회가 내린 동성결혼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다.

1.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믿는다.
2. 우리는 미국의 여러 주(현재 19개 주와 Washington DC)에서 점차 합법화되어가는 동성결혼이 분명히 비성서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양심에 따라 미국장로교한인교회 전국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임을 밝힌다.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미국장로교한인교회전국총회는 221차 교단총회가 결의하며 산하 노회에 수의한 동성결혼에 대한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며, 산하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 6. 24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 회원일동